

강진Wee센터, 멘토-멘티의 진솔한 친구가 되는 소중한 동행

샘-폼 & 맘-폼지원단 위촉식 및 사업설명회

사제 간의 1:1로 결연된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Wee센터는 21일 샘-폼 & 맘-폼지원단 위촉식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10명의 교사 및 학부모 멘토를 위촉하였다.

샘-폼지원단은 사제 간의 1:1로 결연된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사 멘토와 학생 멘티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여 학업중단 및 예방 및 진로 설정,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맘-폼지원단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배려대

상 학생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진Wee센터에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맘-폼지원단은 3명의 자원봉사자 어머니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갑자기 생긴 위기상황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서적, 교육적, 심리적 개입을 통해 긍정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기학생들의 정서, 생활, 학습, 진로체험에 대한 맞춤형 지원활동으로 운영된다.

강진Wee센터 관계자는 "위기학생의 조기 지원을 위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재능·나눔·기부사업 정착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은 "갑수목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품어가는 따뜻한 속에서 배려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간미가 필요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선생님, 엄마의 마음으로 다양한 우리 아이들을 품어줌으로써 내 아이처럼 보듬어 주는 멘토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강진 학생들의 건강하고 긍정적 자아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맘-폼지원단 활동을 지원하는 강진'후원의집'도 배려대상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우리서점, 청운이앤씨(주), 아이좋아 상담센터, 예담한의원, 숙이미용

실, 굿모닝안경, 오투카페 총 7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용연학교, '로드스쿨-오고가고 프로젝트' 개최

자전거로 떠나는 역사·문화 탐방

광주시교육청 Wee스쿨인 용연학교가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로드스쿨-오고가고(5高街Go)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24일 용연학교에 따르면 '오감을 높여 거리로 나가보자'는 의미를 가진 '로드스쿨-오고가고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체험활동으로 진행된 행사다. 지역사회의 의미 있는 곳을 답사하고 오감을 높이는 새로운 체험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확장 경험 및 인성·심리적 자기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용연학교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행사 첫째 날 목포지역 근대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모듬별 빙고게임방식의 미션수행을 통해 팀원 간 협동하며 우리나라 근대 역사문화를 스스로 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21일 행사 둘째 날에는 산동교에서 승촌보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실시해 자연에서 호연지기를 길러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했다.

학생들은 이틀에 걸친 활동을 통해 일상에

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또 팀원과의 화합과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대학교, 지역 3개 대학과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업무협약

전남 도내 4개대학 110여 명, 농촌일손돕기 팔 걷어 붙여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전라남도 와 목포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등 3개 지역대학교와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청에서 이뤄진 이번 협약식에는 순천대학교 허재선 산학협력단장, 목포대학교 정석원 산학협력단장, 전남대학교 민정준 산학협력단장, 전남도립대학교 정재훈 교무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이 한층 심화함에 따라 대학생 지원봉사 수요를 일손 부족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각 대학은 ▲대학생의 농촌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협력 ▲대학생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홍보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협력하게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또한, 도에서 운영 중인 20개 시군 35개소의 농촌인력증강센터를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교통편과 간식 제공,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농촌 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순천대학교 20여 명 학생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총 110여 명이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4개 대학교와 농촌의 인력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대학생들의 영농체험 경험을 늘려 농촌에 대한 이해와 봉사를 통한 자긍심 고취, 농업 분야의 진로체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 낙안면 배 재배 농가에서 생장촉진제 도포작업 봉사에 참여한 순천대학교 김정연(웰빙지원학과) 군은 "농업분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학기에 농산업 체험캠프 강의를 수강중이다"며 "코로나 여파로 현장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적으로 현장학습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영농체험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스포츠체험교실' 출발

무안군체육회와 협력...지역체육교육 활성화에 기여 기대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관)은 24일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안군체육회(회장 박인배)와 연계하여 '2021. 찾아가는 스포츠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시작

했다. 이 프로그램은 무안교육지원청과 무안군체육회가 3월에 체결한 업무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지역 최초로 실시된다.

학교가 희망하는 종목에 대해 무안군체육회 지도자가 답답교사와 함께 학생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무안 지역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학교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기성기자

전기를 쓰고 있는 내집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셨습니까?

정부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2020년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2021년도 지원금액 4월 공고 예정)

Solar Solution SUNTEAM 주식회사 썬팀 SUNTEAM Corp.
상담 | 접수 010-4517-1093

매년 당해 한국에너지공단신청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진행
전국|접수|방문|상담|설치하고 관리해드립니다

어디든지 설치 가능

- 1 지붕에 붙여서 설치하는 지붕형
- 2 옥상 위에 설치하는 슬라브형
- 3 마당 빈공간에 설치하는 마당형
- 4 주차장 옹도로 설치 주차장형
- 5 현관앞 햇빛가림막 비가림막 차양형



지붕, 옥상은 물론 마당 등 우리집 어디든
낮시간에 그늘만 안지면, 우리집도 태양광 설치 가능

평생 전기요금 절감

태양광3kW 설치후 전기요금절감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설치후요금	연간절감액
350 kW	55,080원	→ 1,130원	647,400원
450 kW	88,130원	→ 6,020원	985,320원
500 kW	104,140원	→ 11,320원	1,113,840원
550 kW	120,090원	→ 16,640원	1,241,400원
600 kW	136,040원	→ 31,570원	1,253,640원
650 kW	151,990원	→ 42,250원	1,316,880원
750 kW	183,900원	→ 63,620원	1,443,360원

* 위 전기요금은 2021년 실제 사용량을 참고한 예시금액